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 투쟁승리!

# 투쟁속보

잠정합의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 2021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서

고대의료원은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올해는 임금교섭만 있는 해, 기존에는 임금 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외에는 단협성 합의안은 없었고 올해도 조정회의에서 임금 외에는 다룰 수 없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임금만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통해 우리의 어려운 근무 실태를 알렸고 이에 최우선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 2021 회계연도 임금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잠정 합의함.

#### ■ 임금 총액 3.77%

1. 정규직원의 임금은 총액기준 3.0%를 인상 한다.
2. 7월 급여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는 하계휴가비 40만 원을 지급한다. (0.65%)
3. 콜 당직 대기 수당으로 일 2만 원을 지급한다. (0.12%)
4. 1항, 2항의 소급적용 지급대상자는 합의서 조인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5.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6.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1년 10월 25일 지급 시 지급한다.

- 올해 대학병원 최고 타결율, 일시금 없는 타결

특히, 하계휴가비는 조합원의 요구가 관철된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안(자기계발비, 하계휴가비 등)은 무시하고 적은 기본급 인상으로 기만했던 저들에게 우리의 요구안을 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요구했던 콜 당직 수당도 올해 합의하였습니다.

### 2021년도 기타 잠정합의서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 노동절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 간호직 및 일반업무직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단, 시행시기는 2021년 11월 1일로 하며, 관련 인력은 2022년 3월 중으로 충원 한다.

-> 교대근무자에게 1년에 15개 내외의 휴일(광복절, 어린이날, 설 추석 연휴, 신정 등)이 늘어난 것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원을 80명 충원하는 것까지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2. 3교대 근무자의 휴가 및 off 부여 순서는 기본오프(off)-생리휴가(ca)-슬리핑오프(sleeping off)-연차(ba)순으로 부여한다.

-> 생리휴가를 신청해도 반려하거나 연차를 먼저 사용했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휴가 및 off의 사용순서를 단체협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신청해도 쓸 수 없었던 생리휴가를 실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 3교대 교대 근무자 근무 시 듀티당 인원 축소와 근무표 조정금지 및 2021년 6월 간호등급 상향에 따라 기존 인턴 및 인턴 대체 간호사의 업무 중 병동 간호사에게 이관된 업무 원상복귀 문제는 간호부 교대제 개선 TFT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2일부터 시행 한다.(단, 3교대 교대 근무자 근무 시 듀티 당 인원 축소와 근무표 조정금지는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한 경우 노사가 논의한다.)

->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휴일 근무자 인원 축소와 근무표 조정을 금지하고 더불어 4항(대체휴일) 및 5항(생리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근무당 인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현장이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간호부 교대제 개선 TFT를 시행을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간호부가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금지하고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시작입니다.

4. 정명퇴 사직자는 15명을 충원한다. (2022년 2월 28일)

->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충원 계획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20명으로 한다. (2022년 2월 28일)

-> 단체협약 교섭을 포함한 최근 몇 년간의 교섭 중 최대 인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2020년 10명 - 단체협약 교섭 / 2019년 10명 - 임금교섭 / 2018년 15명 - 단체협약 교섭 \*

## 별도합의서

1. 노사는 2021년 파업과 관련하여 여하한 이유로도 민사소송, 형사상 고소, 고발 제기 및 근로감독 요구 등을 하지 않으며 2021년 파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법적분쟁을 일과 취소 및 취하한다.
2. 사용자는 2021년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 탄압, 노조 탈퇴중용, 배치전환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노사는 파업 참가자 복귀 시 부서 내 갈등이 없도록 상호 노력한다.
4. 노사 일방이 위 합의사항을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을 시 본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9월 27일(월) ~ 9월 30일(목) 4일간